



땡땡이덩굴 / *Cocculus trilobus* (Thunb.) DC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땡땡이덩굴속
과국명	새모래덩굴과

과명	Menisperm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새모래덩굴과 낙엽 활엽 덩굴 식물로 우리나라의 황해도 및 강원도 남부에서 자란다. 일본, 대만, 중국, 필리핀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대만, 중국, 필리핀; 황해도 및 강원도 남부에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덩굴식물.</p> <p>크기 : 길이 3m.</p> <p>꽃색 : 노란색, 백색</p> <p>개화기 : 6월, 5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달걀 같은 둥근 모양이지만 윗부분이 3개로 갈라지기도 한다. 끝이 짧고 뾰족하거나 둔두며 심장저와 비슷한 모양이다. 양면,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고, 3~5개의 맥이 있다. 잎자루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지만 얇은 결각이 있는 경우도 있다.</p> <p>꽃은 6월이 되면 가지 옆의 원뿔모양꽃차례에 황백색으로 핀다. 꽃은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 달린다. 꽃받침열편과 꽃잎은 각각 6개, 수술의 수술도 6개이다. 암꽃에는 가짜 수술이 6개, 암술을 이루는 잎 모양의 구조가 3개, 암술이 1개 있다. 암술대는 원기둥 모양으로서 갈라지지 않는다. 열매는 핵과로 둥근 공모양이다. 8~10월에 검은색으로 익고 하얀 가루로 덮인다. 씨앗은 평평한 둥근 모양에 가깝고 중앙에 구멍이 있으며 고리 모양의 선이 많이 있다.</p> <p>줄기와 잎에는 털이 있으며 줄기의 길이는 3m에 달한다. 줄기가 어릴 때는 초록색이지만 오래 되면 회색으로 변한다.</p> <p>산기슭의 햇볕이 드는 곳이나 밭둑의 돌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.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. 씨를 뿌리거나 꺾꽂이 또는 가지를 휘게 하여 땅에 묻는 휘묻이 등으로 번식시킨다. 땃덩이덩굴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의 상록수림에서 자라며, 천연기념물 제29호에 지정되어 있다.</p>